개인택시·화물차주도 대상… 여러 사업장 중 1곳만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Q&A

1차 지원대상 276만곳에 4.1조

예술·스포츠 관련 30억 이하 등
작년 매출액 기준 요건 충족해야
공동대표땐 대표자 1인에만 지급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이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왼쪽)이 허영회 부이사장(오른쪽)과 함께 11일부터 신청, 지급되기 시작한 '버팀목자금' 현황판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소진공

지원금액은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조5575억원의 예비비 등을 포함해 총 4조1000억원이다. 지원금을 받게되는 1차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총 276만곳에 달한다. 87만8000곳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가운데는 식당과 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고, 이·미용 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가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이 4만5000개 정도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188만1000곳도 앞서 새희망자금 지원과 무관하게 매출 하락이 확인되면 버팀목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식당·카페, PC방, 목욕탕, 독서실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그리고 매출이 하락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씩이다.

버팀목자금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 봤다.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유흥주점, 콜라텍도 대상

우선 버팀목자금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음식·숙박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는 50억원 이하 등 소상공인이 각각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도 업종별로 5~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버팀목자금은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에만 준다. 공동대표라도 대표자 중 1인만 받을 수 있다.

이번 지급 대상에는 연말연시특별방역을 이유로 집합금지를 당해 문을 닫았던 스키장, 눈썰매장, 스키대여점, 스포츠용품점 등을 비롯해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숙박시설도 포함된다.

또 100만원을 지원받는 일반업종의 경우엔 연매출 4억원 이하가 대상으로, 2019년과 2020년의 일정 기간 매출액을 비교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향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다.

화물차주,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매출이 줄어든 개인택시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미성년자 등도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종이 있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나 휴업·폐업 중이면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었던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 대상이다.

◆13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접수

신청 첫날인 11일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을 받았다. 12일엔 짝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면서 "문자를 안내받은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들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공공인증서로 본인인증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 온라인 사용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들은 휴대폰을 사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해야한다. 버팀목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중기부 산하 기관인 소진공의 발빠른 대응으로 지원금은 신청후 당일이나 이튿날 바로 수령할 수 있다.

한 소상공인은 "수도가 얼어서 영업도 못하고 있는데 오전에 신청한 버팀목자금이 점심 직후에 바로 입금돼서 기쁘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때 지원금 수령 통장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이다.

◆신속 대상자외 소상공인 3월 지급

1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소상공인들은 1월 25일 이후에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관련 소상공인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개업한 소상공인 중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확인지급 대상자들은 신청시 공동대표, 가족대리수령의 경우엔 대리인 위임장, 계좌압류 사업장 등은 가족관계증명서류, 비영리단체는 사회적기업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확인서를 별도로 준비해야한다.

2차 신청 대상자들에게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면서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올 中企 수출지원에 2154억 투입

미래차·바이오 등에 30억 자금 신설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돕기 위해 올해 2154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이는 전년의 1985억원보다 169억원(8.5%) 늘어난 규모다.

특히 미래차, K-바이오 등 혁신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3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새로 마련하고, 뽑힌 기업들에게는 전년도 수출실적과 관계없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합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기에는 ▲화상상담회 지원 ▲수출전용 라이브커머스 지원 ▲'브랜드 K' 판로 확대 ▲물류 애로 해소 등을 위한 내용이 두루 담겼다.

우선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디지털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외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지원 강화, 비대면 방식 수출지원도 적극 확대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지원 예산은 지난해 359억원에서 379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 등 최신 유통 동향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비대면 화상상담회, 온·오프라인 연계(O2O) 수출컨소시엄 지원 등 제품소개·바이어상담·수출계약 등 모든 해외마케팅 활동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中企 유공자 포상 서류 1020건 접수

중기중앙회, 전년 665건比 50% 증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소기업 경영 현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경제에 기여한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유공자 포상 접수에 역대 가장 많은 건수가 몰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이달 5일까지 '2021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마감 결과 총 1020건의 서류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의 665건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대표 포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게 중기중앙회측 설명이다.

올해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앞으로 심사·평가를 거쳐 5월 셋째주 중소기업 주간에 열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포상분야는 ▲모범 중소기업인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수단체 등 4개 부문이다.

/김승호 기자

미래성장·마케팅 총괄… 조현민 영향력 확대

〈한진 부사장〉

한진, 2021년 조직개편 단행
택배사업 업무개선팀 신설 등 중심
수도권·경인 등 6개 지역본부 폐지

조현민 (주)한진 부사장

한진 조현민 부사장이 회사의 미래성장전략과 마케팅·홍보 등을 총괄한다.

한진은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유가치창출(CSV)도 더욱 강화해나간다. 택배 업무 효율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진은 ▲미래성장전략실 신설 ▲마케팅총괄부 마케팅실로 확대·개편 ▲미래 성장 경쟁력과 전사적 CSV·전략적 마케팅 강화 ▲택배사업본부내 업무개선팀 신설 ▲지역본부제 폐지를 통한 업무 효율화 등을 중심으로 한 '2021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설 미래성장전략실은 신사업 발굴 및 개발, 한진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 운영,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마케팅실은 기존 마케팅팀, CSV팀에 홍보팀을 이관해 전사적 CSV 및 전략적 마케팅·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함안수박 공동 마케팅과 선불카드·배송을 결합한 '내지갑속과일' 플랫폼 등 지역사회 및 소상공인과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CSV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택배기획본부 내에 업무개선팀도 신설했다. 택배 업무개선팀은 지속적인 택배물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택배 업무 효율화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신사업의 현업 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대신 택배기획본부내의 기존 수도권·경인·중부 등 6개 지역본부는 폐지했다. 이를 통해 각 사업본부에서 지점 직할 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조직 슬림화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사업본부별 책임 관리를 강화한다.

한진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한진이 보유한 물류역량을 활용하며 다양한 구성원과의 상생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CSV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면서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비핵심 자산 매각 등 다각적인 경영효율화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판토스 본사에 영상제작 스튜디오 오픈

조직혁신 위해 '비대면' 활성화

판토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조직 혁신을 위해 '비대면' 활성화에 나섰다.

11일 판토스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서울 종로 본사에 자체 영상 제작 스튜디오를 오픈했다. 업계 최초로 상시 재택근무제도 공표했다.

판토스 스튜디오는 드론을 포함해 실내외 영상 촬영과 편집을 위한 각종 장비들을 갖췄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회사 구성원 누구나 스튜디오를 이용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며 주제에도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았다. 스튜디오 이용을 신청하고 기획안을 짜면 전문 프로듀서와 협업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오픈 직후부터 사내 교육, 사업 성과 공유, 경영진 메시지, 업무 매뉴얼 및 노하우 공유 등 다양한 종류의 영상들을 제작하기 위해 벌써 20여 건이 예약될 만큼 인기가 높다.

/김승호 기자